

스포츠

사자군단 무패우승, 춘계연맹전 최다 우승팀되다



지난 26일 통영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춘계대학축구연맹전 결승전에서 우리학교 축구부가 영남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제51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김유림 객원기자 csyong1617@naver.com

우리학교 축구부가 '제51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 결 한·일정기전 선발전(춘계연맹전)'에서 무패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우승으로 우리학교는 고려대와 함께 춘계연맹전 최다우승팀의 타이틀까지 차지하게 됐다.

지난 26일 통영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우리학교는 영남대와 맞붙었다. 영남대와는 예선전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고, 지난 '제45회 추계대학축구연맹전' 16강에서도 0-0 무승부였던 만큼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다.

전반 6분, 영남대 최강수 선수가 안정훈(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의 얼굴을 겨냥해 퇴장당했다. 하지만 영남대는 10명의 선수로 강한 집중력을 발휘했다. 전반 14분, 영남대 박세진 선수가 왼쪽에서 날아온 크로스를 깔끔하게 헤딩으로 연결해 선취골을 넣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교 축구부는 경기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 추격의 불씨를 지폈다. 전반 30분, 우리학교의 날카로운 공격이 빛을 발했다. 왼쪽에서 돌파하

던 이상하(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가 컷백 형태로 크로스를 올렸고, 이건철(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가 원발로 침착하게 밀어 넣으며 경기의 균형을 맞췄다. 동점골과 함께 우리학교는 상대의 수비를 더욱 압박했고, 바로 4분 뒤에 장정빈(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가 중원에서 페널티박스까지 빠르게 돌파한 뒤 강력한 슈팅으로 추가골을 넣었다.

우리학교 축구부의 과죽지세는 후반전까지 이어졌다. 영남대는 우리학교 선수들의 움직임을 반복으로 끊어내고, 공을 바깥쪽으로 걷어내기 급급했다. 물론, 역습 위주의 공격을 전개한 영남대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박정수(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와 이정훈(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는 날카로운 수비로 더 이상 골을 허용하지 않으며 경기를 2-1 짜릿한 역전승으로 마무리지었다.

준우승 징크스 깨고,
팀의 미래 발굴 성공

이번 대회는 우선 우리학교의 준우승 징크스를 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4년 전 춘계연맹전에서 고려대에 아쉽게 패하면서 준우승에 머무른 이후 출전한 대회에서

<춘계연맹전 우리학교 경기결과>

일시	상대	결과	득점
2월 10일	영남대	0-0 무	
12일	한중대	4-0 승 최동섭, 이건철, 조현우	
14일	동강대	6-0 승 고승범 박정수 박우정	박인혁(3)
18일	동의대	3-0 승 박인혁(2) 안정훈	
20일	한양대	2-0 승 고승범(2)	
22일	상지대	2-0 승 백승훈 고승범	
24일	숭실대	4-3 승 고승범(2) 이건철(2)	
26일	영남대	2-1 승 이건철 장정빈	

준우승에 그치며 우승과는 인연이 없는 팀으로 손꼽히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학교 축구부는 12년 만에 춘계연맹전 정상에 올랐으며, 8번째 춘계연맹전 우승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이것으로 지난해 우승으로 최다우승 타이틀을 갖고 있던 고려대와 동률이 됐다.

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에서는 2학년이 되는 14학번들이 팀의 중심으로 활약해, 향후 우리학교 축구부의 전망을 밝혔다는 점에서도 큰 수확이다. 수문장 지승학(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 수비수 박우정(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 미드필더 안정훈, 유진석, 백승훈(스포츠지도학 2014) 선

수, 공격수 이건철, 박인혁(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까지 포지션 역시 다양하다. 특히나 공격수인 이건철 선수와 박인혁 선수는 큰 신장을 이용해 상대수비를 흔들었고,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뽑아내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한편 우리학교 축구부 4명의 선수가 개인상도 수상했다. 결승전까지 총 8경기를 치르면서 단 4골만을 허용한 골키퍼 지승학 선수가 GK상, 대회 내내 물오른 골감각을 자랑하며 5골을 뽑아낸 고승범(스포츠지도학 2103) 선수가 득점상, 우리학교 축구부가 최소 실점하는데 한몫한 이정훈 선수가 수비상을, 결승전에서 크게 활약한 장정빈 선수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축구부 김광진 감독은 "그동안 준우승 트라우마에 걸려 힘들었다"며 "오늘 우승이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 같고 끝까지 끈끈함을 유지한 선수들에게 고맙다"라고 말했다. 축구부 이정훈 주장은 "미드필더들이 공격가담, 수비가담 하느라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담될 텐데도 수비가담을 열심히 해주 편하게 대회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축구부 김광진 감독

Q. 우승 축하한다. 12년 만의 우승이다.

A. 그동안 준우승 트라우마에 걸려서 힘들었다. 오늘이 그것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기쁘다. 끝까지 끈끈함을 유지하며 경기에 임해준 선수단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Q. 힘들었던 경기다. 선취골을 주고 시작했다.

A. 상대가 불미스러운 행동을 범해서 아쉽다. 정상적인 경기가 됐다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서로에게 지루한 경기가 돼서 아쉽다.

Q. 결승까지 총 8경기를 치렀다. 가장 힘들었던 경기는 어떤 경기였나?

A. 한 경기 한경기 모두 힘들었지만 숭실대와의 준결승전이 가장 힘들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새해 시작부터 오늘까지 힘든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묵묵히 훈련을 따라준 우리 선수들에게 우승의 영광을 돌린다.



MVP 장정빈 선수

Q. 결승전이 시작되기 전에 팀원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궁금하다.

A. 결승전이니까 관중도 많고, 중계도 해주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경기 밖의 분위기에 신경 쓰지 말고 하던 대로 하자고 말했다. 우리가 해왔던 만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Q. 우승에 이어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A. 이상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 팀 모든 선수들에게 고마운 마음이다.

Q. 이제 시즌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각오 한 마디 해달라.

A. 첫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 앞으로의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다.

온라인 취업컨텐츠 솔루션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취업진로지원처 입니다.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취업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취업컨텐츠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직무적성검사 모의테스트 (공기업 포함 25개 기업 이상)
무제한 서비스 이용 (모바일, 테블릿 지원)
No.1 취업커뮤니티(DAUM 취업뽀개기)를 비롯한 취업전문가와 함께 최신 정보 수시 업데이트

서비스 경로 (이용방법)

- ① 경희대학교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career.khu.ac.kr>) 로그인
② 화면 중간부분 [온라인 취업솔루션] 배너 클릭



컨텐츠 안내



Report Report E-test Report

취업전략리포트 합격자 자기소개서 주요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면접 가이드북
채용설명회 일자리제작 기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기타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기업별 직무사전

Video Video Video Video

대한민국 자원 산업군 합격 자소서 항목별 작성법 삼성그룹(SSAT) 유형분석
지원직무 분석 역량항목 작성하기 SSAT 수리상화(응용계산)
전자공시 기업분석 실패경험 선정 및 작성 SSAT 수리심화(자료해석)
성공 취업스터디 운용전략 합격 자기소개서 작성법 대기업 통합직성검사
금융권 필수 강의 500자 자소서 2가지 법칙 SK증합직성검사 유형분석
[금융권] 마을먹고 준비 두산그룹(DCAT) 유형분석
[금융권] 단계별 핵심공략 현대자동차그룹 유형분석
[금융권] 자소서 공략 CJ그룹(CJ CAT) 유형분석
금융권 직무적성검사 특강

1분 스피치(금융권)
1분 스피치(기술영업)
1분 자기소개 전략
면접의 종류 및 유형 준비
인성면접 단골질문
토론면접 Q&A
임원면접 A to Z

이미지컨설팅 - 면접의상
이미지컨설팅 - 면접매너
이미지컨설팅 - 면접스피치
성공면접 노하우
사로잡는 면접화법

cover

우수 증간/중소기업 정보
합격자 성공스토리
오후의 직장인 인터뷰
1000 대기업정보

cover

자기소개서 명언집
기업별 자기소개서 항목

cover

직무적성검사 후기
직무적성검사 학습자료

면접 후기

이미지컨설팅 - 면접의상
이미지컨설팅 - 면접매너
이미지컨설팅 - 면접스피치
성공면접 노하우
사로잡는 면접화법